

광주 ‘의료·미용기기’ 카자흐스탄·몽골서 통했다

독립국가연합 해외시장개척단, 중기 10곳과 수출상담회 참가
수출상담 109건·MOU 11건·수출계약 2건 152만달러 체결

광주시가 ‘K-컬처’ 열풍을 앞세워 카자흐스탄과 몽골 수출시장을 개척했다.

K-팝을 필두로 K-푸드, K-뷰티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기·미용·식품 등 공략해 광주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저변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광주시는 ‘독립국가연합(CIS) 해외시장개척단’이 최근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수출상담회를 열어 수출상담 109건·977만달러, 양해각서(MOU) 11건·140만달러, 수출계약 2건·152만달러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독립국가연합(CIS)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1991년까지 소련연방의 일원이었던 독립국가 11개국이다. 이번 독립국가연합(CIS)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역에는 몽골이 포함됐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고환율,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급변하는 세계 통상환경에 대응해 지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체시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를 비롯해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광역자치체가 공동 개최, 현지 바이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역 중소기업 10곳과 함께 ‘독립국가연합 해외시장개척단’을 꾸려 수출상담회를 열어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거래선을 모색하고, 독립국가연합 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개척단에는 종합소비재 품목의 지역 중소기업

10곳이 참가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서 자 동심장충격기를 제조하는 업체가 42만달러의 수출계약을 맺은 데 이어 화장품을 제조 업체는 1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LED피부미용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는 카자흐스탄과 몽골에서 각각 51만달러, 200만달러의 수출상담을 이끌어내며 이번 수출상담회에서 가장 높은 수출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또 진단용 X선 촬영장치 제조업체도 카자흐스탄과 몽골에서 각각 14만달러, 125만달러 수출상담 성과를 보였다.

광주시는 이번 수출상담 및 MOU 성과를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가기 위해 해외물류비, 해외지사화, 무역보험료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독립국가연합(CIS) 해외시장개척단’은 현지 시장 이해도와 실질적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독립국가연합 전문 물류기업의 물류창고와 카자흐스탄 대표 식품 제조기업을 잇따라 방문, 현지 물류·유통 실태와 시장 동향을 파악했다.

주최의 경제산업국장은 “세계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수출상담회는 지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수출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확인

다음달 초부터 실시되는 만65세(1960년생)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대상포진 접종을 앞두고 14일 광주 북구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직원이 백신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예방접종은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한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지역 핵심 사업 대선공약 반영...강기정 시장 ‘주간 여의도 집무실’ 연다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등 총력

광주시가 지역 핵심 공약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운영한다.

‘여의도 현장 행정’으로 광주 미래 10년을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매주 수요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광주시 대외협력본부에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연다.

강기정(사진) 광주시장은 대선기간동안 매주 활동 주제와 관련한 실·국장 등 인력을 간소화해 매주 수요일 서울에서 근무를 한다.

당장 16~17일 이틀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 등 5개 중앙정당을 잇따라 방문해 광주 대선공약인 ‘광주의 제안’을 전달하고 광주가 AI중심 도시 도약에 적지라는 것을 알릴 예정이다.

광주의 AI 사업을 대선공약에 반영하는 한편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등 AI 2단계 국비 확보 등 정부 추경에도 신속히 움직이겠다는 계획이다. 안산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도 참석한다.

강시장은 “광주는 AI 중심도시로 나가기 위해 AI인프라, AI인재, AI기업을 착각 준비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여기에 더해 AI실증을 위한 추경 편성, 고성능 GPU 1만장 확보,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등에 총력 매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여는 AI는 속도와 집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다. 풍부한 전력과 부지를 갖췄고, 국내 유일 국가AI데이터센터 운영 경험을 축적한 광주야말로 인공지능(AI)을 통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23일에는 달빛 철도 예타 면제를 위한 행정업무 진행할 방침이다

강 시장은 “대선이라는 큰 장(場)이 서면, 지자체장은 본인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어떤 정책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5년, 10년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고 서울 근무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김대중 정부의 광산업, 노무현 정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재인 정부의 AI(인공지능)가 그랬다”며 “계엄과 탄핵으로 미뤄진 인공지능(AI), 광주-대구 달빛철도 등 대선 정국에서 광주의 일을 속도감 있게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8일 인공지능(AI) 모델시타-더 브레인 광주,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등 15대 과제, 40개 사업, 81조원 규모의 정책을 담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지역 공약 ‘광주의 제안’을 발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일손 부족 해소...광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취약계층 농가 우선 배정

광주시가 지방소멸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인력 중개에 나선다.

광주시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총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해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남구(대촌농협)와 광산구(평동·동곡농협)를 거점으로 센터를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근로가능인력을 모집해 인력 부족 농가에 연계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고령농, 여성 단독, 소규모 농가 등 취약계층 농가를 우선 중개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 농가에 현장 실습교육비, 농작업자에게는 교통·숙박비, 작업반장 수당, 보험료 등의 지원도 병행된다. 단, 농작업 참여자의 인건비는 해당 농

가가 직접 지급한다.

농가는 해당 농협이나 ‘도농인력 중개 플랫폼’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지역 유휴인력을 농촌 일손 부족 문제와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상생 모델로 준비된 사업”이라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일손 부족 농가 1255가구에 2290명의 농작업자를 연계하는 등 총 2만824건의 인력을 중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도, 교통안전시설 대폭 강화... ‘교통약자 보호’ 집중

370억 투입...스마트 횡단보도·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설치 등

전남도는 14일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정비사업에 37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우선 100억원을 들여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또 고령운전자가 차량에 차선이탈 방지 장치를 설치하면 1인 당 57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지원 차량은 총

629대다.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14개소), 마을진입로 과속방지 시설(54개소), 활주로형 횡단보도(102개소) 등 설치에 119억원을 투입한다.

또 15억원을 들여 스마트 횡단보도와 보행신

호 자동연장시스템 등 최첨단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운전자의 교통안전 환경 개선에는 136억원 예산을 편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15개소)을 비롯해 회전교차로(10개소), 과속단속카메라(81개소), 시야 확보 표지판(230개) 등을 추가 설치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최무송 의장

임종국 부의장

고영임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한양임 의원
(행정자치위원장)

김귀성 의원
(경제복지위원장)

이숙희 의원
(안전도시위원장)

최기영 의원

김영순 의원

주순일 의원

김건안 의원

광주 북구의회 개원 34주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소통과 협치로 더 나은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기대서 의원

전미용 의원

강성훈 의원

정상용 의원

손혜진 의원

황예원 의원

정달성 의원

정재성 의원

신정훈 의원